

헬로쉽교회

우리 하나되어

사랑하는 자와의 친밀감

- 금식수양회

평신도 훈련 센터 - 제자의 삶은 이제 막 시작 외
희망의 날 - 하나님은 '사랑' 이십니다 외
사역자반 - 몽골교회 방문기

우리하나되어

CONTENTS | 2009. 2

- 03 사역소개 - 호스피스 사역 - 양하영
- 04 VA 송구영신예배 MD 신년예배
- 08 금식수양회 - 사랑하는 자와의 친밀감 - 오장석
- 10 금식수양회 간증 - 말씀이 능력되어 - 권미정
- 12 희망의 날 간증 -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 김미숙 외
- 19 금식수양회 간증 - 주님의 신부되기 원합니다 - 박성연 외
- 22 평신도 훈련 간증 - 제자의 삶은 이제 막 시작 - 양윤희 외
- 28 사역자반 - 몽골교회 방문기 - 유진형
- 30 티모시수양회 간증 - 힘차게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 Joanne Oh 외
- 33 평신도 훈련 간증 - 하나님 짝! - 장수형 외
- 36 사도 바울 - 뜻 밖의 고난과 열매 - 오장석
- 41 종족소개 -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 이스라엘 - 유종우
- 43 맥체인 성경읽기표

표지사진설명

예배학교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배운 뒤,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



**헬로십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12



22

호스피스 사역

글 - 양하영



처음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앞에 붙은 사역 이름을 들었을 때에는 왠지 무거운 생각이 들었다. 이제 임종을 바로 앞에 둔 환자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노인 분들을 섬기는 사역이라는 생각에 평신도들이 선뜻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호스피스 사역을 설명해 준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곧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영혼들을 섬기는, 보람되고 뜻 깊은 아름다운 사역이다.

호스피스 사역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헬로쉽교회의 호스피스 사역은 2003년 7월 25일에 시작되었다.

호스피스 사역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투병할 수 있도록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평안과 소망을 갖도록 복음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지지해주고 섬김으로 끝까지 투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호스피스 사역이 하는 일은?

환자의 집으로, 또는 환자가 소속되어 있는 양로원으로 방문하여 찬양과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한다. 호스피스 사역에는 장례 및 사후 관리부, 찬양부, 교육부, 중보기도부, 봉사부가 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헬로쉽교회 홈페이지 호스피스 사역 부분을 참고 바람)

호스피스 사역에 필요한 자격은?


‘몽고메리 호스피스(Montgomery Hospice, MH)’ 기관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몽고메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Montgomery Hospice Volunteer)’ 자격증이 수여되며 ‘몽고메리 호스피스’에서 의뢰하는 한인 환자들을 섬길 수 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같이 동행할 경우 동 기관에서 의뢰한 환자들을 같이 섬길 수 있다. (헬로쉽교

회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사역에는 호스피스 사역의 정기 모임과 사역에 참여하여 교회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마치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

호스피스 사역은 정기적으로 매달 둘째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랜돌프 너싱 홈(Randolph Nursing Home, 코리안 코너 뒤편에 위치)’을 방문하여 그곳에 계신 한인 노인 분들을 섬기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랜돌프 양로원을 방문하는 사역자들. 정기적으로 찾아와주는 것을 아는 그곳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 한 번은 몇 주째 차곡차곡 본인들 분량으로 배급받으신 우유를 모아, 선물로 방문한 사역자들에게 주신 할머니도 계셨고, 어떤 할머니는 외모가 뛰어난 남자 집사 한 분을 방문하는 시간 내내 쓰다듬어주신 적도 있다고 한다. 사랑을 베풀기 위해 찾아간 사역자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이다.

호스피스란 죽음을 눈앞에 둔 어둡고 침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평안한 임종을 위한 것임을 헬로쉽교회 호스피스 사역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

정말 영혼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호스피스 사역자들에게 커다란 박수를 보내고 싶다. 특히나, 2005년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많은 영혼들의 길이 아름답고 평안할 수 있을 것 같다.

호스피스 사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조진숙 전도사 또는 김인찬 집사에게 하면 된다. 



V
A

성가대 봉사









사랑하는 자와의 친밀감

글 - 오장석

‘사랑하는 자’와의 친밀감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월 16일과 17일, 포토맥 파크 수양관에서 270명의 교우가 모인 가운데 2009년 금식수양회가 있었다. 그런데 금식수양회를 앞두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 겨울이라 당연히 춥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기온이 낮았다. 그러나 지난 50일간 ‘희망의 날(Time of Jubilee)’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었던 탓인지 수양관 안에는 찬양의 열기로 가득했다. 교우들 모두 시작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찬양에 임했고, 마음껏 예배에 빠져보겠다는 의지 또한 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과 주고받았던 대화였던 ‘아가서’를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가서는 일상생활에서 부부의 사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교본이기도 하지만, 신랑되신 주님과 신부되는 교회(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 주신 것이다.

금요일 저녁 첫 번째 집회에서는 아가서 1장 4절, ‘그의 침실로 나를 이끄시니’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 나누었다. 사랑하는 자와 더불어 가장 은밀한 곳이자 가장 친밀한 곳인 침실에 들어가기 바라는 마음, 또한 함께 ‘서둘러 달려가자’는 자세를 통해 예배를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세가 이래야 한다. 기다리고 사모했던 마음이 컸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부터 뛰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이다”라며 “예수님의 침실, 곧 지성소로 들어가 그분의 품에 안기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빠져 들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느끼고 확인하자”고 김원기 목사는 당부하였


다. 말씀 후 교우들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빠져들고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일까? 4시간 가까운 집회이었지만 마치 30분을 보낸 것처럼 시간이 획 지나갔다.

토요일 아침 집회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가슴이 뛰었던 그 순간, 바로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였다. 시간이 흐르면 마음보다 행동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예배의 절차에 익숙해져서 무뎠진 마음으로 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만으로 충분했던 첫사랑의 그 시절을 되새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가슴으로 다시 사랑하도록 소망하였다. 홀로 조용히 묵상하며, 또는 주변의 길을 걸으며 마음으로 주께 사랑 드리고, 경배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토요일 마지막 집회에서는 너무 친밀하여져서 하나님의 위엄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연인이 아닌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였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다려주신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도 기다리다 어느 때는 가신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달려 나가 맞이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신 후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을 찾아 헤매야만 한다"며 김원기 목사는 "관계를 중단하면 좋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희망의 날’ 50일의 기간 동안 우리는 바쁜 일과 속에서 늘어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훈련받았다. 나의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했으며, 때로는 하루하루를 보다 간소하게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에 관해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분산시키는 것들을 제거하는 기간이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하루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일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민감하게 성령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배우고 경험하는 기간이었다.

그렇다. 관계는 하루라도 중단하면 좋지 않다. 금식 수양회를 마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되어

글 - 권미정

지난 2008년 12월 20일은, 2001년 7월 첫째 주 주일 즉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주신 그 날 이후에, 제 인생에 있어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이 되어버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경설명을 드리자면, 저의 남편과 저는 둘 다 ‘박사 후 과정’ 5년차로서 직장 구하는 문제를 놓고서 작년 3월 부흥회부터 오이코스 식구들과 함께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가능해 보이는 세 가지의 길을 놓고,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알기 위해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심하게 요동치는 남편과 저를 보며 믿음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실망을 하며 마음이 무척 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밖에 없으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김원기 목사님께서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소리 내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저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내심 저의 이 황폐하고 상한 심령을 아버지께서 위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아. 네가 친절하나.’ ‘예?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네 마음 속에서 선한 것이 쌓여서 선한 말이 입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악한 것이 쌓여서 악한 말이 나오느냐?’ 저는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분명히 누가복음 6장 4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고 따라서 이것은 아버지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저에게 위로를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책망하시는구나, 너무하신다’ 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잠깐, 제가 며칠 전 직장 동료에게 심한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장면, 제 남편이 저를 허탈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제가 제 아들에게 고향 지르고 욕하는 장면, 제가 어릴 때 여동생 세 명을 때리고 욕하던 장면 등등, 숨 쉴 틈도 없이 저의 악한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제가 섬기고 있는 오이코스에서 목원들에게 상냥하게 말하는 모습들, 그들을 위해주는 말들, 교회 한우리반에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다정하게 환영하는 모습들도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오이코스나 교회에서는 정말로 제 마음이 기뻐서, 제가 웃고 또 친절하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집에서나 직장에서는 그






게 안 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이전에도 두 번이나 저의 언행을 고치기 위해 부흥회에서 간절히 기도드렸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는 악으로 가득 찬 저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저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는 7년이 지난 지금도 악에 쌓여서 아버지께 영광돌리기는 커녕,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나는 오늘 고침 받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2008년 12월 20일입니다. 오늘 이후에 제가 다시 남을 저주하거나 맘에 독을 품고 악한 말을 하면, 운전할 때까지 포함해서, 아버지 차라리 저를 쳐 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 속에서 화가 거의 나지 않았고, 또 화가 나려고 하면 웬지 성령님이 제게 경고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주님. 제가 조심할게요.’

며칠이 지난 뒤, 저희 가족이 참으로 오랜만에 대화할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된 주제는 12학년인 저희 아들의 대학과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화가 하나님과의 교제 쪽으로 흐르면서, 급기야 제가 아들에게 제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간증 후, 놀랍게도 아들 입에서 나온 말, “I noticed it.” 아들도 남편도 저의 뭔가 바뀐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신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제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 18년 만에 정말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는 친밀한 대화를 하고 있고, 제 아들과 저는 가끔 스킨쉽도 하며, 아주 오래 전의 친밀했던 모자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며, 그 말씀을 듣고서 진정한 회개가 내 속에 일어날 때, 그 말씀은 바로 나를 고치는 능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끝으로 그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네가 지금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며 살까를 고민하며 네 속을 태우고 있는데, 네가 변화되어 네 속에서 선한 것이 우러나오면, 너로 인해 네 주변이 그 어느 곳이라도 천국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이십니다

글 - 김미숙



‘Time of Jubilee (희망의 날)’을 체험하며 받은 감동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जूबिली(Jubilee)”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 마음 속에 떠올랐던 생각은 제가 21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롤렉스 시계였습니다. 정교한 기계 하나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뛰어난 솜씨의 기술을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높은 품질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물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는 시간, 실패하는 시간, 실패를 통해 배우는 시간,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정확하게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초에 제가 받은 선물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거대한 타이틀을 내세운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집회는 50년마다 한 번씩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행사였으니까요. 그저 하나의 집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험이 되었던 행사였습니다. 하루의 단 몇 분이라도 빠지고 싶지 않았던 체험이었습니다.

성경말씀에 따르면 “जूबिली(Jubilee)”는 휴식의 시간이란 뜻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또 다른 휴식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인가? 5년 동안이나 나는 고립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시 고립된 시간들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저는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려 깊은 체스선수가 바른 전략과 다음 움직임을 계획하듯이, 저 또한 신령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저를 위한 그분의 지시를 기다려 왔습니다. 제 방법은 저의 여왕(Queen)을 먼저 앞으로 움직이고, 왕(King)이 그곳에서 저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시기의 ‘TOJ’였습니다. 이러한 집회를 위해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 지 몰랐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뇌출혈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슬픔에 젖어있었던 저에게 ‘TOJ’의 타이밍은 이

I write my thoughts as I am moved to share my experience at the “Time of Jubilee”. When I heard the word Jubilee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my mind was Rolex. A gift I received from my parents at 21 years of age. How they reminded me to appreciate the great workmanship of quality work that went into making such an instrument. How anything made of such quality and workmanship takes time to develop, time to fail, time to learn from its mistake, and finally another chance to redo it correctly. Initially, I had received a gift of not only a time piece but an instrument that represented life. Of course, when our church announced an event with such title with its magnitude, I had no doubt to take part in this event. Indeed, it was an event that could only come every 50 years. It was not just an event but, an experience. An experience I did not want to miss a day of not even a minute. According to the bible, Jubilee was referring to a time of rest; I thought oh, no is God putting us through another rest period. I’ve been in isolation for 5 years now. Would he ask me to go through another period of isolation? In any case, I needed to hear God’s plan for my next move. As a thoughtful chess player, planning the right strategy, and its next move, I too have waited to hear from the divine for his direction for me. My direction was to move my Queen forward and the King would meet me there. The timing was perfect, and TOJ it is. I have been ready for such an event. Even in the shadows of darkness not knowing what to expect, I was determine to hear from GOD.

The timing couldn’t have been better for me. I had just gone through 5 years of mourning of my

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첫 번째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신 어머니는 두 번째 뇌출혈로 인해 결국 어머니의 고향인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서서히 어머니가 생명을 잃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팽팽한 헬륨풍선이 아름답게 하늘을 떠다니다가 서서히 바람이 빠져 힘없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어머니를 감히 헬륨풍선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때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어머니가 생명의 줄을 놓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또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끝이 있고 전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지평선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개인으로서, 또한 한 가족으로 저희 식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신비한 기독교의 신앙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교훈을 통하여 저희 가족으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였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한,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새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이러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어머니 밑에 태어난 저희는 축복받은 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범이 되셨던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주시냐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년 동안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기 위해 주님의 만지심이 절실히 필요했던 가족과 친지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1년 반은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번째 뇌출혈로 인해 온 몸이 마비가 되시면서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위에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었고, 매일 같이 제 마음은 어머니가 받으시는 그 고통에 함께 빠져 지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마비가 되어오면서 저도 함께 서서히 제 삶에서 손을 놓기



mother who had suffered a stroke 5 years ago, where it left half of her body paralyzed, followed by a second stroke, that eventually lead her home. During the 5 years I watched her loose life through a gradual process. Like a process of watching a helium balloon flying beautifully, mighty in the sky full of air, until it gradually loose air and end up on the ground, lifeless. Of course, my mother is no one to compare to a helium balloon, but its stature. During the 5 years as I watched her let go of life. I also lost the value in life, and was awakened by the fact that there is an end to life, an end to a horizon that seemed endless before. In that 5 years our growth with God individually and as a family has grown to an immeasurable stature that I am convinced my relationship with God would not be where it is today without her sacrifice. It is my conviction that for the past 5 years God has taken our family to physically experience Him by walking us through the mystery of Christianity and the lesson on the truth of its word, faith, hope, in love. It is a relationship that is centered around Jesus and through his sacrifice, his unconditional love for us. It is through this Love, that he gave his children new life, not only a new life but a life in eternity. We have been blessed as a family to be born under a mother who understood the true meaning of Love is making those sacrifice. It is through this loving example from my mother that I can truly relate to the love that Jesus has placed in us. I remember at times, I would plead; cry out to God why is she being crucified for so long. Jesuses' was crucified for 6 hours I believe. Yet I have to watch her suffering for many years. Her Condition got worst as years passed because we had a great number of families that needed God's touch, to be totally depended on

시작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능하신 그 분께 저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던 저는, 말씀을 만나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저는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무릎 꿇으시며 기도를 통하여 어머니께 아버지의 삶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지난 5년 동안 침대에서 주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언제나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병과의 싸움의 강도가 가혹해지고 지속적으로 되었던 작년에 저희는 정말 힘든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더 많은 혼란이 있었고, 항상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날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상과 친구들, 그리고 전화와 텔레비전으로부터 제 자신을 완전히 차단하며, 대신 하나님의 세상에 더욱 빠지기 위해서 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매일 같이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며, 어떠한 싸움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한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고 하시며, 개입하셔서 어머니를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주님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용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식구들에게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완성하실 때까지 어머니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머니의 자리에 가득했으며, 주님의 집으로 어머니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모든 연말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본인의 희생의 대가로 저희가 삶을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참된 사랑의 우수한 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TOJ'가 광고되었을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 앞줄에 앉아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저를 준비시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남편은 저와 함께 동행해주었고, 저희는 완전한 하나로, 그리고 또 부부로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을 수 있었습니다.

'TOJ'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him and only Him. The last year and a half became the worst because she suffered her second stroke, became totally paralyzed and could no longer eat. She was fed through a tube connected into her stomach. I don't believe a day went by where my heart was immersed in her pain with her. As my mother's body became physically immobile, I slowly let go of my own life with her. Through this process I learned to completely surrender my life to the almighty. Not a day went by without me having to depend on his word for strength, which is how I realize what Jesus meant when he said his word is like manna. I was full only by his word. At the same time, my father continued to stay on his knee



giving life to my mother through prayer. I don't believe he slept in his bed for 5 years. He was always on his knees praying for her. The true battle came last year when the intensity of the battle became severe and seemed nonstop. Each day brought in more confusion, and not all days were filled by his joy. I tried harder by totally sending myself into isolation, by completely cutting myself away from the world, from friends, phone, TV, and instead drowned further into his word. Each day I would equip myself in the full armor of God and he had prepared me to take on a battle from all directions, even using the people I most value and love. Finally, God said that is enough and intervene and called my mother home into his eternal Peace. I know my mother she was a warrior and she hung on until God had completely finished his task in us. His Glory was all over her presence he called her

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유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영광은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실질적인 체험을 통하여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그저 피를 끊게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시간, 행동, 책임을 필요로 하며 그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내면 안에 있는 평화의 물결인 것입니다. 저는 등 뒤에 많은 상처, 멍, 찢김, 그리고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저의 한 부분으로 아픔의 자국들이 남아있지만, 저는 기쁨으로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사랑을 선택하겠다고 말입니다.

제 마음은 'TOJ'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50일 동안 하루에 두 끼를 금식하며 참여했습니다. 내 삶의 뚜렷한 방향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단단히 마음 먹었습니다. 제단 앞에 아무 것도 없이, 제 마음 하나 달랑 가지고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며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비록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당연한 것으로, 항상 그저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였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을 원치 않으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미숙아!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어라. 너의 아픔까지도! 그동안의 고통으로 충분하다! 이제 땅 끝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이 나의 발판이 됨을 보리라. 또한 이태리의 바티칸을 시작으로 나의 영광으로 인해 이 세상이 밝아짐을 보리라.”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home.

Now a couple of month has passed since her death. We had skipped all holiday celebration in order to honor her. She had always wanted us to live our life to its fullest on her cost. Now I am able to reflect on the goodness of what True Love is by her example. In my heart I said my final good byes to the one who gave me physical life and taught me how to Love. Then when TOJ was announced there was no doubt in my mind that I would attend everyday and sit in the front row because God had been preparing me for this. I was totally ready. It was through God's Grace that my husband walked with me and we were joined together as a whole, as a couple to immersed in God's Love throughout the event. Through TOJ we were reminded of what True worship is and what God desires from us, our

most valuable possession. He wanted our heart, we are His. The Glory is His Peace in Love. Through actual experience, it is far so much more than words can ever say. I believe Love is not just an emotion that gets your blood flowing but true Love takes time, it



takes actions, accountability, it takes no conditions. It is just a flow of Peace within. I have taken an expensive lesson, with strips on my back, with numerous of scars, bruises, cuts and parts of me that may never heal, yet I can joyfully say I will take Love any day.


My heart was ready for TOJ. I had gone through the 50 days fasting two meals each day. I was determined to wrestle with God until I heard specific directions for my life. I came before the Alter with nothing to offer him but my heart. Surprisingly, he said it was acceptable. He had accepted with Joy because he said he has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for me. Although, I took for granted of being born into a Christian home and always took it as a religion. However, he has taught me that it is a relationship, he doesn't want us to idol him. He wants us to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 태양 아래 있는 그 어떤 신앙도 하나님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됨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 자신이 많은 무리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나누어질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제 자신이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뿐만이 아니라,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인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매일 긍정적인 태도로 삶의 부정적인 면들을 환영하면서 걸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회 기간 동안 저는 청룡열차를 타는 기분으로 다녔습니다. 하루는 비행기, 그것도 대통령 전용비행기를 타는 기분으로 교회를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의 영광 근처에라도 가기 위해 자전거라도 타야 했지만 찾을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청룡열차가 수직으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인 최고의 절정 부분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예배당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때 그런 제 모습에 대한 공격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루 일과의 피곤함으로 지쳐있는 저 자신을 앞자리에 질질 끌어다 놓은 적도 있었는데, 그런 날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 주셨습니다. 매일 저의 우선권은 하나님이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약속하신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저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오직 한 길, 믿음으로 인한,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 하나님은 지금 이곳 저희들을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단순히 보이지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love him as a living person. He reminded me that nothing is mine, that everything is His. “Surrender it all to me my beloved daughter Mee Sook”, including your pain, you have suffered enough” Now “Go spread my word to the end of the earth, and you shall see that the earth is my foot stool, you shall see the earth light up through my Glory starting in Italy, the Vatican”. Our God is a living God a God that changes lives, nothing is Impossible for Him. There is no faith under the Sun like His.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participate as a community and

to experience unity through worship. I am so grateful to everyone. I also know that I am no one special that he chose out of the bunch. His love is so enormous that there is enough love to go around to everyone in his Grace. I just happen to choose an obvious narrow path not only because I am insufficient, but I believe it is the only way. So each day I walk with a positive attitude, welcoming the negative things in life. Since nothing belongs to me it is easier to let go.

To be totally honest even during this event, each day has been a roller coaster ride. I would walk out of church on a plane, Air force One at that and the next day I can't even find a bicycle to take me anywhere near his Glory. The

right next day I would be at a peak point of a roller coaster headed down completely vertical, nose down. I would walk in to church with my hair standing upwards, just unbelievable on the attacks. I would find myself dragging into the front role exhausted from the day. On those days, he would carry me in. Each day God is my priority and everything else he promised he will take care of. “Just focus on Me”, the only way, through Faith, in Love for Christ. Our God is here waiting on us, all of us. Just call on him with all your heart. He is all about LOVE. Seem so simple, yet

It takes a life time to learn. He is LOVE, no need for proof in LOVE. 

그리스도의 몸짱이 되자

글 - 이경석

동창(東窓)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해들아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발을 언제 갈려 하나니

2009년 새해 아침이 밝았다.

1월에 가장 바쁜 곳이 헬스클럽이라고 한다. 모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 새해부터 새로운 각오를 하기 때문이다. 30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온전한 영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무슨 각오를 했나 생각할 때 자연히 숨을 곳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를 보러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조차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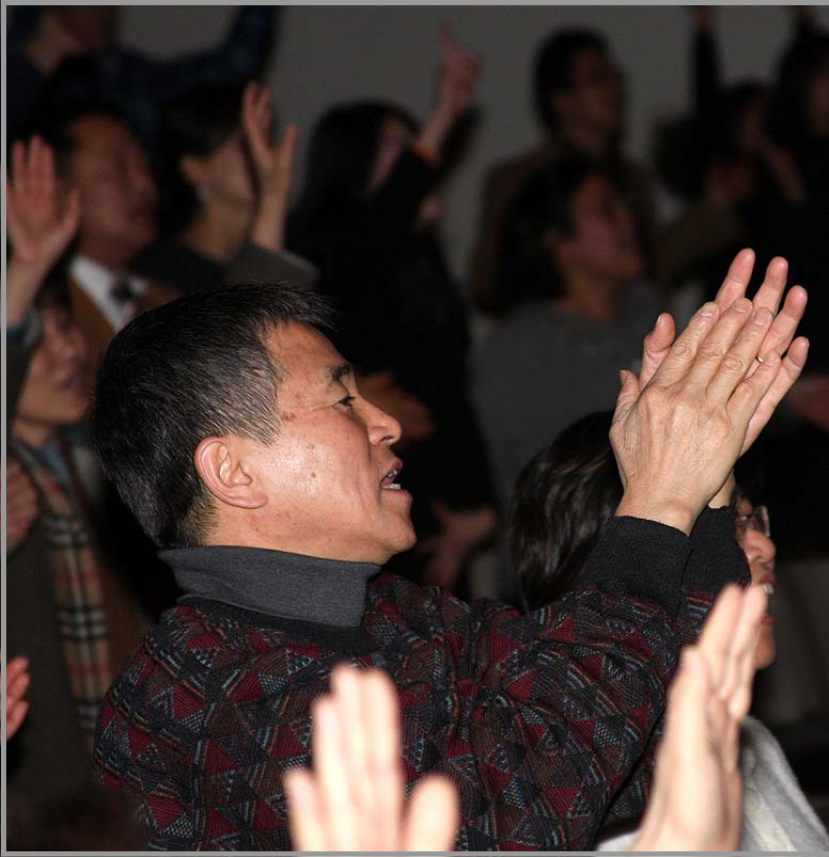
나의 건강과 아이들의 모든 육체적인 것에만 기를 쓰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을 향해 무조건 달렸다. 하지만 무엇 하나 잡은 게 없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이젠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써야 하고, 눈 밑에는 검버섯이 생기고, 큰 아들 뿐만 아니라 작은 아들 녀석한테까지 힘으로도 안 되고, 기억력도 점점 잃어가고, 웬지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겨울 탓인지 온몸이 건조하고 옷을 끼어 입어도 춥다.



얼마나 노력했던가? 이 썩어져가는..., 어차피 빈손으로 떠나는 세상인데.... 왜 나는 이제야 깨닫는 걸까? 좀 더 일찍 영적인 것에 투자했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도 늦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몸짱'을 만들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기 위해 작년 한해는 나름대로 '제자반' 성경공부를 통해 약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비싼 향수를 뿌려도 만나절은커녕 한 시간도 가질 못했다. 위낙 세상에 종노릇한 세월이 길었는지, 너무 악취 나는 나의 수 많은 죄 때문에 그리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제자반 성경공부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무더진 나의 죄성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다.

'희망의 날(TOJ: Time of Jubilee)'을 시작할 때 나는 각오를 했다. 우선 하루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은





혜를 받자는 욕심보다, 우리 교회의 강하고 비싼 그리스도의 값비싼 향수를 지닌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있으면 그 향기가 내 몸에 배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동안 내가 교회를 다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30년 이상의 교회 짬밥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굳게 붙드심과 그의 은혜로, 다른 신앙인의 향기에 묻혀서 연명하고 있었다.

주제 파악을 해야 하지만, 출장 때문에 한번은 빠졌으나, 은근히 욕심을 내 성령의 불 받기를 기대하며 ‘TOJ’가 끝나기 전에 성령의 불 달라고 찬양을 외치며 기도하고 있다. 오늘까진 아직 불은 안주셨지만 감동을 통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딜레마는 이번 ‘TOJ’ 때 풀어주셨다.


그 딜레마는 세상의 슬픈 이야기/드라마/영화를 보고는 눈물을 흘려도 죄 없는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에, 나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고도 내내 묵묵했었다.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주님은 나를 필요에 따라 눈물로 나를 씻어 주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시던, 안주시던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여 결국에는 축복하신다.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것들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헛되고 헛됨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충만하시도록 계속해서 더

러움은 내보내고 새로움으로 채울 것이다. 감사가 이루어 말할 수 없다. 충분히 버리셨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그 오랜 세월동안, 이 가면 저 가면을 써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 가는 놈이 저 따위야”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건가?

새해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아비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한다. 나의 불치병이었던 사랑 결핍증을 치료할 수 있는 오직 한 길, 하나님으로부터 그 크신 사랑을 공급받으며, 시편 24장 말씀처럼 손을 깨끗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여호와와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짱을 만들기 위해 2009년을 시작할 수 있게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야곱 흉내를 내어 감히 씨름을 해본다.

머리말의 시는 조선 숙종 때 문신 약천 ‘남구만’이 지은 시조이다.

늦잠을 잘 때면 새해가 되면 곧 잘 생각나는 시조였다, 하지만 2009년 새해를 맞으며, 제자반 성경공부를 마치며 그리고 특히 ‘TOJ’를 통해 말씀하신다.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파하라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짱을 만들라고. 

주님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

글 - 박성연

금식 수양회에 참석하며 추상적인 의미로 안 생각했던 “정결한 신부”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저의 말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TOJ 이전: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라면 선교를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위 과정을 하며 의도하지 않게 밀려 밀려 한국에서 스위스로, 다시 미국으로 옮기며 두렵고 외로운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 때마다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에 (부모님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부한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졸업만 하면 단기선교로, 혹 미전도 종족에게 기회가 된다면 ‘가르치며 사랑하며’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있는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자랑하고 있는가? 학위보다도...”

금식수양회와 TOJ를 마치며: ‘TOJ’ 시작과 중반에는 기도도 잘 안되고, 집중도 사실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끝나갈 무렵, 정결한 신부가 뭔지 이해하기 위해 생각하며 때론 주변의 지체들에게 물어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결, 순결이면...죄의 문제? 그렇다면 거짓된 행위, 말, 음란한 생각과 말들, 행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사실 또 실수하는 거 같아서 맥이 빠지긴 했지만 순간순간 깨어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 근본적인 저의 사고나 행동반경, 사람들과의 관계, 선교까지도 깊숙이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저의 내면에서 너무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트 의식으로부터 자유한가?’


정말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은 일류대 출신, 비슷한 학위 소지자, 그 범위 내에서의 안정감, 전도의 영역도, 선교를 생각하는 것도 사실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도 내 목표에 맞는 위치가 우상이 된 게 아닐까? 공부한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하며 고백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로부터 정결케 해 주세요, 자유롭게 해 주세요, 이 제라도 깨닫게 해 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자유로워질 때까지 의식하며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불타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해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이미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2001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던 스위스 취리히 공항. 아무런 연고 없이 사진으로만, 논문으로만 알던 교수님만 믿고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주님만을 의지했던 시간. 현실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그리 좋아하는 김치도 구하기 힘들었던 3년 반의 시간 동안 벽 보며 주님께 기도했던 시간들. 철저히 단독으로 있을 수 밖에 없었기에 주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사람들의 관심, 세속적인 것들이 탐이 나 눈이 자꾸 돌아갑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모든 게 있어도 주님을 가장 우선 순위로 주님만을 비둘기 같이 순결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당신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약하디 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으로 부르셨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직 순전한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I want to be the vessel for Your work, Amen. 

하나님 앞에 부서져서

글 - 김왕대

헬로쉽교회에 나온 지는 4개월 정도 된다. 헬로쉽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오랫동안 조그마한 장로교회에서 예배 드렸었다. 4개월 동안 큰 교회인 헬로쉽교회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담들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로 교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교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내 눈과 마주치면 누구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마다 인사하기 바빴다. 내 눈과 마주쳤는데 인사를 하지 않으면 오해할까 봐도 걱정이 되었다.

두 번째는 작은 교회에서 찾기 힘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영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잘 준비된 많은 프로그램들이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언제 이 많은 수업들을 끝내라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었다.

세 번째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 자유로워 힘들었다. 주일 예배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심지어는 몇 분들은 뛰며, 울며, 아멘 하며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 분위기였다. 그 중 제일 나를 볼 때마다 생각하게 했던 것은 손들며 찬양하는 분들이었다. 그 분들을 뒤에서 보면서 든 생각은 ‘저 분들 뒤통수 뜨겁지 않나’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면 내가 남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내 뒤통수를 보는 분들 때문에 내 뒤통수도 아주 뜨거울 것만 같았다. 예배 시간에 내 자신의 자아와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을 나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한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날(Time of Jubilee, TOJ)’과 금식수양회를 통하여 계속되어지는 회복을 허락하시고 계신다.

‘TOJ’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누구의 시선 때문에 뒤통수가 뜨거운 것을 느끼기 보단 이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예배를 드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예배학교와 겸하여 주일 저녁 ‘TOJ’ 예배 때, 김원기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서져야 한다”고 했을 때, 나 자신도 목사님의 옛 모습처럼 신사 쪽에 속한 사람이었다. 정말 체면을 많이 차리며 점잖은 사람 중의 하나였다. 어떤 성도 한 분께서 내 행동을 볼 때마다 내가 군인 출신인 줄 알았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서져야 한다는 말은 정말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을 때, 내 자아와의 싸움의 갈등이 있었다. 그 갈등을 이기기 위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솟아지기 시작했다. 그 동안 답답하고 강박했던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금식수양회에 가족과 함께 다녀왔다. 금식수양회가 있기 전 주 'TOJ'를 끝난 후 오이코스 인도자인 나희주 목사님께서 금식수양회에 같이 가자고 했었다. 아침 예배 후 등록을 하려고 했었는데, “깜빡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등록해도 된다고 알아봐주셔서, 등록을 하게 되었다. 등록을 한 후 금식 기도회를 가면 굶어야 하는 것과 두 아이를 데려 가면 금식 기도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할 것에 대하여 조금 걱정이 되

었다.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가려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사정이 허락치 않았다.

금식수양회 첫 날 집회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 적응해주어서 많은 방해를 받지 않았다. 김원기 목사님께서 금식수양회 동안 아가서로 설교를 해 주시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가서를 통한 설교는 정말 처음이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부부 사이에도 이런 ‘가까운 관계(Intimate Relationship)’를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 날 저녁 찬양과 말씀 그리고 안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시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솔직하며, 깨끗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다음 날은 우리 아들이 화장실 출입이 너무 많아 금식수양회에 초점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다. 하지만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시간과 두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좋았다. 마지막 목사님의 설교 후 소그룹 인도자를 따라 큰 빵, 포도 주스, 그리고 몇 개의 오렌지를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을 가졌다. 다른 소그룹도 마찬가지로였겠지만 우리 소그룹 모임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꿀맛 같다며 감사히 먹었다. 그 날 먹었던 큰 빵, 포도 주스, 오렌지를 정말 꿀맛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매일 주시는 음식에 감사하기로 했다. 

제자의 삶은 이제 막 시작

글 - 양운호

다시 시작한 신앙생활을 이제 막 1년하고 8개월을 조금 넘겼습니다. 흘러간 1년이 넘는 세월을 시간으로만 따져보면 너무나도 길기만 한 시간인데 막상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 너무나도 빨리 바람처럼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보야겠다는 다짐 하나만 달랑 있었을 뿐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리버리한 저와 제 아내를 새가족 반 과정으로 밀어 넣으시고 협박 조금, 권유 조금, 회유 조금, 아부 조금을 뒤섞어 가시며 저희 부부의 정신을 빼며 새가족 반을 마칠 수 있도록 챙겨주신 오이코스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도 전에 성장반이란 곳에 저희를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개월 코스를 이왕에 들어온 거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는 맘으로 숙제와 암송 등등 오래간만에 쓰는 머리 때문에 두통을 앓아가며 그 유명한 김경자 권사님 반을 간신히 졸업을 했답니다. 제 주 제면 이 정도만 하면 끝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장반이 끝나갈 무렵 제자반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마치 무엇인가 홀린 듯 그 어떤 핑계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정신나간 사람마냥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등록을 해놓고 나니 자꾸만 회의적인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일 먼저 괴롭히기 시작한 생각은 ‘나 같은게 무슨 제자훈련씩이나’ 하는 생각,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그 분의 그림자 한 움큼 만쯤이라도 닮을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덕분에지 그런 생각은 어느덧 사라졌지만 이제는 숙제의 부담감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일 년이란 시간 동안 매일 말씀 외우고 숙제 하고 일지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하기도 전에 머리에 쥐가 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정대영 장로님이 간판하시기가 김권사님 못지 않다던데.. 중간에 잘리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집요한 괴롭힘(?)을 당



하지 않고 헬로칩교회를 계속해서 맘 편히 섬길 작정이라면 어차피 안하고는 못 배길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 ‘못 먹어도 고!’ 하는 심정으로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교우분들은 ‘못 먹어도 고!’ 라는 말을 모르실 것 같아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스톱 판에서 점수를 더 내려고 모험을 하며 판을 조금 더 끄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점수를 크게 내려다 다른 사람이 점수를 내서 이기게 되면 바가지를 쓰고 오히려 다른 상대의 돈까지 물어주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을 말합니다.

과정이 시작되고 주어진 숙제를 하면서 가끔은 부담도 되었고 게으름을 피우기도 했고 빼 먹기도 하고 머리가 나빠 안 외워지는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중얼거리기도 하면서 차츰 차츰 익숙해져 가는 모습에 저와 제 아내는 서로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지금은 대박 났을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 몇 가지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한 기도도 매일 하기 힘들었던 저에게 일지를 쓰는 숙제는 중보기도를 하도록 되어있어 억지로라도 믿지 않는 친구들과 기도가 필요한 식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제 친구들 4명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함께 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매일 말씀을 일고 묵상일지를 써야하는 숙제 때문에라도 1월에 시작한 백채인 읽기를 쉬지않고 할 수 있었고 평생 공부와 연관된 상이라고는 받아보질

못했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책을 상으로 받는 가문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가 아내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 주간 외워야 했던 말씀이 떠올라 아내에게 이번 주 말씀을 외워보라고 요구를 했더니, 싸우던 중에 저를 김경자 권사님으로 착각을 한 듯 줄줄이 외우던 아내는 한풀 꺾인 기세로 화해를 요구해 와서 난관을 잘 극복했던, 아주 실제적으로 삶 속에 말씀을 적용했던 기억도 납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에서 나아가 삶 가운데 적용하는 지혜 또한 차츰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과공부를 하며 전혀 모르던 교우분들과 같은 반 급우로 만나 서로의 의견과 삶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배워가는 중에 오이코스를 한 번 더하는 듯한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서 좋았고, 겉모습으로만 뵈 때는 무척이나 냉정하실 것 같았던 정대영 장로님을 가까이서 교제를 해보니 선입견과는 많이 다르신 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사실 오이코스과 사역에 연관이 되지 않으며 얼굴만 알고 지낸 분들을 귀한 신앙의 선후배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것 또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귀동냥으로 또 지난 과정들에서 배운 기독교 교리들을 좀 더 깊숙이 말씀과 삶에 연관하여 배울 때 그것들이 저에겐 좀 더 실제적인 이해와 체험적인 이해로 다가왔고 마음판에 더욱 확고히 새겨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난 후, 한 달간의 방학을 통하여 느슨

하여진 저는 TD로, 예배팀으로, 또 다른 사역들로 섬긴다하는 핑계 아닌 핑계를 가지고 학기말로 다가갈수록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습니다. 양심에 찔려 자퇴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지난 시절 뼈 아픈 자퇴의 시련 후에 ‘자퇴는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다’라는 신념으로 양심의 찔림을 봉대로 칭칭 동여매고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작과 맺음이 그리 신통하지 않으나, ‘못 먹어도 고!’를 외치며 불확실한 나와의 아니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을 땐 이미 이겨놓은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고스톱 판에서는 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바가지 쓰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조그만 나의 결심으로 고!를 부르고 난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때의 내 영적 점수에서 두 배 아니 파파블이 되어있음을 스스로 돌아보며 역시 못 먹어도 고 하길 잘 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자반 과정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제자반을 통하여 배운 것을 토대로 하루하루 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을 삶을 통하여 조금씩 연습하고 실천하며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힘쓰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커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결심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제자반 가르치시느라 너무나 수고하신 두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글 - 김춘환

특별히 여러분 앞에 간증할 것이 없고 그리고 말 주변도 없는 제가 이 시간 지난 1년여 간 제자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금년 50세를 맞이하고 신앙생활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35년이란 길다면 긴 세월을 교회와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영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1980년 10월 어느 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후로 설교 말씀과 성경공부를 통하여 나의 신앙 지식은 성장되었고 이 세상 것과 과거의 나쁜 습관 등과의 영적 깊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인하여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특히 가족들에게 덕이 되지 않은 모습을 통하여 부끄럽기만 합니다.

내가 미국 땅을 밟은 것은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각오를 갖기 위한 신앙적 결단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막상 미국에 도착하여 잘 할 것이라고 한 기대는 나에게 허울 뿐이었고 그저 주일, 교회에 나가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렇게 하여 미국 온지도 어언 8년여 세월이 훌쩍 지나고 우연찮게 이곳 저먼타운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어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2년 전 헬로쉽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미 경험했던 구원의 확신반, 목적반, 새가족반, 성장반, 제자반 등의 과정을 또 다시 머리 아프게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 과정 과정마다 인자하고 열정적인 평신도 사역자로 수고하시는 좋은 선생님들을 대하니 너무 좋았고 함께 공부하는 클래스 멤버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제자반을 이끌어 주신 김경자 권사님의 극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수업하는 날, 일찍 오셔서 교실도 없는 계단 통로에서 책상을 준비하시고 의자를 갖다 놓으시고 이 날이 오기만을 마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신 것처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이자 제자훈련에 임하는 각오와 결단을 주시면서 기도하고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울먹거리며 기도하시는데 분위기가 제법 긴장되었던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과제물과 외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외울 수 있는지 몸소 외워가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한 마디로 기가 질려 말문이 막히고, 이거 어떻게 이 과정을 마칠 수 있나 하는 생각으로 주눅이 들고 우려가 앞섰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공과 공부는 성장반에서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적어가면서 간단한 단답형의 질문이므로 쉽게 정리할 수 있었습시다만, 일기는 초등학교 때 억지로



평신도훈련 제자반 (교사: 김경자 권사)

며칠치를 적어 하루 이틀사이로 적어 내느라 고생한 기억 밖에 없는데 매일 영적일지를 써 오라고 하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에 나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하여 기록하고 하루 삶을 돌이켜보는 수준으로 부담 없이 되는대로 적었습니다.

QT나눔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본문이 주는 의미와 나의 삶을 비교해 가면서 내가 하여야 할 일들을 정리하여 기록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지난 봄 학기에 제자훈련 I을 하면서 기록하였던 영적일지를 모처럼 들여다봤더니 처음은 몇 자 적지도 않고 제출하였고 참으로 이렇게 소홀히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 4개월이 지났을 때 훨씬 적는 것이 나아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독서물은 퇴근하면서 집 근처 한가한 공원 주차장에 주차하고 1시간 정도 조용한 차안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집에 들어오면 몸이 더 릴렉스하게 되고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함으로 좀처럼 책읽기가 어려워 주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밖에서 읽고 들어왔습니다.

암송은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았고 단지 출퇴근하는 시간에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외웠습니다. 40여분씩 운전하면서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히 두 구절을 외울 수 있었고 일주일 중 나머지 5일은 주로 반복하여 암송하여 외웠습니다. 6과까지는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었는데 점점 분량이 많아져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적어가면서 외워보기도 하고 하루에 두 번 정도 암송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달여 정도 방학을 맞아 꿈같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을학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암송을 3, 4주 미리 앞서 외워 나가니 공부하는 시간이 한결 가벼워졌고 긴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잘 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주초에 특히 주일 저녁시간에 공과공부 연습을 미리 하고 새벽 일찍 조용한 시간에 기도한 QT를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처음 외우는 것은 힘들고, 반복하는 것은 비교적 쉽고, 반복하는 과정에도 틀린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어떤 때는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가 나를 깜짝 놀라게 하여 참으로 외우는 것이 끝이 없구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싫증이 나므로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어렵게 외워서인지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구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이번



제자반을 통하여 저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말씀입니다.

제자반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바로 직전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 적응하느라 힘들었고, 막내아들이 이라크에 군인으로 파병근무에 들어가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여야 했고 미국에 이민 온지 8년여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한국을 3주 동안 방문하여 가족, 친지들을 만나 바쁘게 시간을 보내야 했었고, 집안 형편상 회사일과 병행하여 토요일과 일과 후 제 개인적으로 일을 하여야 했었고, 지난 가을 한 때는 회사에 일이 없어 실직위기를 맞이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하였고, 방학기간 중 일하다 사다리에 떨어져 다치기도 하여 힘들었습니다. (방학 중에 다쳐 다행이었습니다.)

또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느라 영어책과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에 힘입은 바라 생각합니다. 특히 제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김경자 선생님과 함께 중보기도하며 공부한 클래스 멤버들과 내 가까워서 항상 사랑하고 알뜰살뜰 보살피 주는 아내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2009년 새해를 맞이하여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나의 막힌 눈물샘이 터지기를 기도하며 중보기도를 통하여 치유함을 얻고 나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김경자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오이코스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다

글 - 김정원

2008년은 제게 있어서 잊어버리고 싶은 것보다 기억하고픈 것들이 더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내 곁에 함께하실 수 없는 분, 내 기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옆집 아저씨처럼 제게는 어려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주일이면 교회에 가는 삶을 살았지만 성경책을 통독해 본 적도 없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조차 희미했습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었으며 그 중요성 또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까 라고 의심도 했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여전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신앙에 있어서 어린 아이였고 늘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신경을 통해 늘 주일마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성령'이란



말은 TV 고발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상한 기도원, 큰소리로 방언을 하며 옆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는 시끄럽고 이상한 사람들, 지하철에서 보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피켓을 든, 소위 '예수쟁이'들이 것썸으로나 여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전까지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던, 아니 무늬조차도 희미했던 제게 모든 것을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성장반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체험들을 통하여 다시금 제 신앙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그 바탕이 될 못하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장반에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즐기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성장반에서 배운 것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들어본 내용들이긴 했지만, 다시금 하나하나 기본부터 배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워, 미리 예습하고, QT 하고, 성경구절 외우고, 권장 도서를 읽는 일들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8개의 성경구절을 암송하여 백지에 써 냈던 일, 14개의 성경구절을 써 냈던 일은 완벽하진 않아도 '아직은 나도 팬클럽구나' 하는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릴적 성경암송 대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구절을 외우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되니까요.



평신도훈련 성장반 (교사: 한기선 집사)

믿음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장반을 함께 한 형제, 자매님들과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통하여 내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고, 서로 격려하며, '나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장반을 하면서 일주일이 늘 분주하고, 주일 하루는 너무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성장반을 마치고 나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바로 집에 가면서도 너무 집에 일찍 온 것 같아 어색했고, 남편과 서로 숙제를 했는지, 성경 구절은 암송했는지 서로 점검해야 할 것 같고.. 하지만 이런 허전함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성장반을 통하여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배웠다면, 올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 줄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움이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향기가 나기를 꿈 꿉 봅니다. 



몽골교회 방문기

글 - 유진형



지난 크리스마스 주일 사역자반에서는 공훈을 나누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버지니아 소재 몽골인 교회의 크리스마스 만찬을 섬기게 되었다. 우리가 섬긴 워싱턴 몽골리안 교회는 3년 전 메릴랜드를 방문하셔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몽골에서의 사역을 소개해주신 고재형 선교사님을 통해 알게 된 작은 지역 교회이다. 현재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한국인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로 매주 어린이 포함 50-60명 정도의 교인이 출석하는데, 매년 크리스마스 만찬 때 믿지 않는 몽골인들을 초청하여 전도하는 ‘새생명 축제’를 한다. 매년 보통 100-150명 정도의 몽골 분들이 모이시는 이 만찬을 도와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은 준비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었다. 다들 가장 바쁜 일정들을 갖고 있는 크리스마스 연말이었기에 다른 모든 모임들이 몰려있는 시기이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가장 바쁜 때이었기에... 하지만 이번 준비를 통해 우리 사역자반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열린 마음이 모이면 이렇게도 일이 잘 진행 되는구나, 할 정도로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음식준비는 감탄할 만했다. 금요일 최 에스더 집사님과 우리 가정의 장을 보고, 각자 준비물을 점검하고 토요일 새벽예배 후를 기약하며 헤어졌다. 아이를 중고등부 모임에 데려다주고 그 사이 시간을 이용한 시장 보기였고, 그동안 모아 둔 할인쿠폰을 모두 다 쓴 알뜰 장보기이기도 하였다.

다음날 새벽 예배 후 8시가 다 되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어쩌나 걱정을 하였지만, 걱정은 잠시. 단 오 분 만에 우리는 모두 다 모여 있었다. 즉석에서 반장으로 추대되신 김말레 집사님의 모두를 세워주시는 리드와 채경숙 집사님의 익숙한 손놀림에 모두들 감탄을 하면서, 그리고 묵묵히 모든 설거지를 해주신 김은경 자매님의 단합된 힘으로 단 1시간 반 만에 음식재료가 다 다들어져 주일날을 기다리게 될 수 있었다.

드디어 주일날 1부 예배를 마치고 부엌에 모인 우리는 또 하나의 어려움을 맞이하였다. 그 주 점심판매를 담당하는 주일학교 학부모회의 음식 중 3통의 국이 상해서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음식을 장만하느라 주일학교 학부모들이 찢찢매고 있는 것이었다.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팔 건너부처 점심판매 음식 준비에 동참을 하였고, 단 30분 만에 또 다른 두 통의 국과 반찬을 점심 판매 음식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정광미 집사님의 멋진 고백처럼 우리 사역자반은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신 구호 천사가 되어있었다. 점심판매 음식을 밀어낸(?) 후 이제 우리 음식, 몽골교회 만찬을 섬기기 위한 음식준비에 들어갔다. 장수환 형제님의 예술적 불고기 굽기와 뜨거운 음식 나르기 술선에 감탄하였고, 김성무 집사님, 김화자 집사님이 잡채를 무칠 때 모두들 한마디씩 간섭을 하면서 즐겁게 또 순식간에 음식을 완성. 세 쟁반의 음식을 예정하였지만, 실제로 다섯 쟁반의 음식을 장만하게 되었다. 시간을 보니 12시 30분. 출발 예정 시간인 1시까지는 30분 정도가 남아서 우리는 특송 연습을 좀 더 하기로 결정하고 모두들 우리의 ‘계단’ 교실로 이동하였다. 이동 중 같이 동참하기로 한 유종우 형제님 가정을 만나 같이 몽골어 찬양을 연습하고 기도하고 출발하였다.

두 대의 미니밴에 음식과 사람들이 나눠 타고 버지니아 ‘폴스 처치(falls church)’에 위치한 성광교회로 출발하였다. 특송하기로 한 몽골 찬양을 씨디로 들으





면서, 연습하면서, 담소하면서 40분의 거리가 하나도 멀지 않게 느껴졌다. 예배시간 2시까지 15분의 여유를 갖고 도착한 우리는 예배 장소와 교제 장소를 확인하고, 음식 준비를 마치고 예배 장소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들리는 몽골어가 참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잠시 후 사람들의 밝은 표정과 친절로 우리는 점점 몽골인들과 동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 뵈는 목사님의 환영과 교인들에게 차편을 제공하고 나중에 도착하신 사모님을 뵈면서 더 평안한 마음을 받았다. 마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온 것처럼. 예배는 좀 늦게 시작하게 되었다.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관계로 전기 연결과 프로젝터 등의 설치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듯했다.


드디어 예배의 시작. 익숙한 음절이지만, 몽골어로 부르는 찬양은 정말로 새로운 느낌이었다. 예배의 시작을 장식한 예수님 탄생의 연극. 보통 우리는 어린이들의 귀여운 연극으로 생각하는 장면을 어른들의 장엄한 몽골어 역양으로 보여주는 목동의 이야기,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또 다른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몽골어로 예수님 탄생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천둥 같은 목소리가 귀에 찌렁찌렁하게 울렸다. 몽골 천사의 목소리로 캐롤을 부르는 성가대의 찬양도 은혜스러웠다.

예배시간에 세분의 세례식이 진행되었다. 물론 침례가 아닌 세례였지만, 진정으로 기다려온 세례임을 느낄 수 있었다. 세례를 받은 사람도, 이를 축하해주는 교인들도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서로 축하하면서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모습은 더욱 더 세례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듯 했다. 이어지는 목사님의 몽골어 설교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력하게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선포하시는 듯했다. 중간 중간 터져 나오는 ‘할렐루야’와 ‘아멘’은 이들의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듯 했다. 물론 말씀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가끔 목사님이 ‘다같이’ (발음이 비슷한 듯) 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성도가 말씀을 따라 하는 것 외에는...

김성무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온’ 우리의 목적을 조리 있고 재미있게 말씀해주셨고 유정현 자매님의 반주에 맞춰 몽골어로 특송을 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같이 찬양해주며 진정으로 환영을 해주셨다.

드디어 예배를 마치고, 준비된 어린 아이들의 장기를 보는 동안 우리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음식 서빙은 사역자 반과, 기쁨으로 동참해주신 전정림 자매님이 같이 담당했다. 유종우 형제님이 지난 여름 몽골 단기선교 때 촬영한 비디오와 사진들을 편집한 파일을 준비해주셨고 사모님은 유종우 형제의 멘트를 몽골어로 통역해주셨다.

모두들 즐거운 가운데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환영하고 대접하는 가운데, 실수를 보면 ‘괜찮아’를 연발하는 몽골 식구들. ‘고맙습니다’ 정도는 모두들 알고 있는 듯했다. 몇몇 분들은 우리들 옆에서 접시를 떼어주시면서 톱툰이 통역을 해 주시고 배려해주시는 손길을 제공해 주셨다. 예배시간 때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던 교인들이 식사시간에는 왜 이리도 많아 보이던지? 준비해간 모든 음식을 다 나눠주고 우리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래도 음식이 모자라지는 않았다 라고. 우리도 남은 음식으로 저녁을 먹고 대충 쓰레기와 부엌 찬기 등을 정리하고 아쉽게도 친교도 나누지 못한 채 떠나야 했다. 우리의 ‘TOJ’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는 5시 10분쯤 출발하였다. 우리의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몽골 성도님들의 의미 있는 한마디. “내년에 또 봐요.” 교회 건물도 없이 여기저기 주일날마다 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몽골 교회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담당했다는 뿌듯함이 솟아났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거저 받았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누려고 시작한 사역이었지만, 늘 그랬듯이 우리가 더욱 많이 받고 감사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다. 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계획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힘차게 여행을 계속 할 것입니다

글 - Joanne Oh (6학년)

겨울수양회는 제 영적성장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갔고, QT를 하고 어떤 일을 위해 기도를 하라는 말을 항상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독교인의 일들”을 아무 의미 없이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강한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고 사탄 앞에서 약했습니다.

저는 지금 6학년이고, 이번이 첫 번째 수양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강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탄 앞에서 더 취약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강한 기독교인이 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수양회에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영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느낀 것은 영어 예배의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뛰면서 있는 힘을 다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모두에게 손을 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고, 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 자랄 수는 없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양회를 갔습니다.

수양회는 처음부터 엄청난 정열로 가득했습니다. 초청강사인 Mr. Chris Boucher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Mr. Chris가 말한 어떤 것들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로, 사탄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으로부터 저를 떼어놓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저는 QT를 하거나 성경책을 읽기에 “너무 바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사탄에게 대



My spiritual growth has shown change because of the winter retreat. Like a lot of people, I was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I went to church on Sundays and was always told to do my QT or to pray for certain things. When I did those “Christian things” it showed no meaning. I wasn’t becoming a strong Christian and I was vulnerable to Satan.

I’m in 6th grade and this was my first retreat. To some, they may think I don’t need to work on a really strong relationship while I’m still young, but that would make me even more vulnerable and make it harder to actually be a strong Christian as I grew older. That’s one thing this retreat has taught me.

I first felt different spiritually at one of the EC worship times. I looked around and I saw these people jumping and praising with a lot of energy. I got pumped inside. Then the pastor told everyone to reach out and try to feel God’s touch. That’s when I felt the Holy Spirit’s presence. I was so encouraged to learn more and to grow my faith in God after that. Of course, I wouldn’t be able to grow alone. I needed help and turned to the retreat.


I went and from the start there was so much energy. Then Chris Boucher, the guest speaker really taught me how to survive as a Christian. I never put to thought about some of the thing he

항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Mr. Chris가 설교한 것 중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를 걱정하는 바람에 시작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제 삶을 좌지우지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런 걱정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비하에 빠져서 제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의 기준을 정하시며, 제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많이 다투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여 저를 언제나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자비를 가지고 언제나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가 하는 일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애정을 가지고 언제나 저한테 맞는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결코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제가 가족 안에서 저의 역할을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부모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Mr. Chris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요즘 시대에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생각할 때, 섹스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이란 큰 의미를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보통 생각하던 것 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수양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다른 상급생들이 자신들의 삶을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앞으로 제 앞에 펼쳐질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또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한 일이 제자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여행이 힘차게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said. For one thing, Satan had been trying to keep me away from God without me realizing it. A lot of the time I had been “too busy” to do my QT or read the bible. It was one of the reasons why I had been drifting away from God. I haven’t really tried to resist Satan yet.

Another thing he talked about was one I had problems with. I was worried about what other people would think about me. Sometimes I wouldn’t do things because I was worried about what others would say. It really took control of my life. The more time had passed, the more it took over. Other times I might really put myself down and I wasn’t confident in myself enough. Now I don’t care as much of what other people might think of me. I’ve learned that God sets the standards of what I should do or shouldn’t do and I should be more independent of what others think of me.

Personally, I got into a lot of arguments with my mom and dad. I hadn’t realized how much love they had for me though. They were filled with love and always loved me. They had grace and were always forgiving. They had support for me and whatever I did. Lastly, they had intimacy and always wanted what was best for me. Christ had really bound us together. My family may never be perfect but I know now that I can play my role in the family better. It made me love my parents so much.

I also learned that I can use the word love too easily. God is love and God’s love has no conditions. Love is pictured differently in this time and age. Most people think of sex when they think of love (I thought of that, too) because the world thinks that. I realized love is a big thing and that God’s love is a lot more amazing than I normally think of it now.


I had learned so much and having the chance to listen to what my older peers had to say about how they were doing showed me that my road ahead wasn’t going to be easy. I knew I could still do things now and continue to grow. That’s why I took action and am taking a discipleship class. I hope to continue my journey with strength. 

Seeking Humility

글 - Stacey Pyon (12학년)

Throughout the retreat, God really impressed upon my heart how important humility is. During one of the worship sessions, Pastor Brian encouraged everyone to bow down on the ground before God. As soon as he said that, I was hesitant as I wondered to myself if other people were actually going to kneel down or what people would think of me if I did kneel down. As these thoughts were running through my mind, God revealed to me that my prideful nature was holding me back from praising God to the fullest potential. There I was contemplating what should have been a pretty obvious decision, if I should bow down before the

King of Kings. I realized how foolish I was, and I fell to my knees before God in repentance. It became clear to me that I was lacking humility in many areas, especially in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my family. Because I lacked humility, I always did my quiet times half-heartedly and out of obligation because I thought God wasn't worthy of my time. This obviously hindered my relationship with Him. My lack of humility was not only affecting my relationship with God, it also had an effect on my relationship with my parents. My pride made it hard for me to listen to them and to follow orders without talking back or complaining. I wasn't giving my parents the respect that they deserve.

Since the retreat, I've tried to exercise humility in every aspect of my life. One main aspect that God reminded me of was my role as an oikos leader. Often times I think of the oikos leader as someone who just leads the discussions at oikos, but being an oikos leader is more than that. I should be leading by serving the members of my oikos and youth group with pure intentions, without seeking recognition or reward. I would like to say that since the retreat I've become a completely humble person, but that would be a lie. I still struggle with my pride, but I'm definitely trying harder to be a person filled with humility, whether it be by simply holding back an objection when I don't agree with my parents, or devoting a part of my morning to God. Hopefully I will be constantly reminded of humility through Jesus' example, and will continue to seek a humble heart like His. 



하나님 짱!

글 - 장수형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 것이지,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입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저희 가족이 헬로쉽교회에 나온 지 어느덧 2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1년 6개월은 그냥 왔다 갔다 했고, 사람 구경하고, 비판하고, 안 좋은 작은 일도 있었지만, 웬지 모르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6, 7월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지만, 정말이지 신기할 정도로 많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평, 불만의 황제였고 신경질적인 것과 욕하는 성질과 입을 열었다 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을 냈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마음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버릴 것도 많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은 완전히 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끊었습니다. 1년이 넘었으니까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희 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위에 너무나 좋은 분들이, 아니 훌륭한 분들이 저희 가족 곁에 계시고 저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고, 짱이세요! 이렇게 변화를



제 가슴에 주시고, 그렇게 하기 싫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했던 성장반을 단단히 마음 먹고 하시게 하셨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우는 것과, 책, 공부시간이 지옥으로만 생각했던 내 평생의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특히 선생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일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 선생님 잘 가르치고, 졸립지도 않고 재미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짧으냐” 하고 매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성장반 시간을 기다리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말씀인 성경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칭찬 한 번 못 들어보고 따뜻한 말 한 마디 못 들어 본 게 한이 맺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이 어떠냐고, 잘 지내느냐 전화해 주셨을 때, 속으로 많이,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생각해서 전화를 주셨구나! 이러한 마음이 다가 오면서, 선생님이 이러하데 하나님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정말 감정을 주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말씀의 구절구절들이 마음 속에 와 닿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성장반을 졸업하는 이 자리에 같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공부한 동료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수업하면서 해 주신 말들에 은혜입고 같이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 끝으로 두서없이 쓰고 간증한 것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내, 황연선, 황인태 집사님, 김일봉 집사님, 김종민 권사님, 김홍석 형제 님과, 채미성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평신도훈련 성장반 (교사: 채미성 집사)

주님 앞에 납작하게 앞드려

글 - 진윤정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닌 것이 늘 마냥 즐겁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느 순간에는 밋밋해져 버린 신앙생활에 갈증이 나면서 후퇴할 수도 없고, 나 같은 경우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세상과 격리(!)시켜 놓으셨기에 전진 아니면 죽음이다. 그래서 도전하게 된 것이 성경공부 “제자반 훈련” 이었다. 수업 시작 후, 수업을 끝까지 해 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도중하차하는 분들을 보며 안타까운 맘도 들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말씀이 가장 큰 무기라고 하는데 어찌시려고 저러나 걱정도 되면서, 그래도 난 Go야!! 난 할 수 있어! 열심히 해야지!! 스스로에게 기를 불어 넣으며 제자반 훈련에 임한 것이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조명해 주는 교재공부를 매주 하고, 매일 말씀 읽기와 매일 말씀 묵상과 예배는 물론 틈틈이 읽어줘야 하는 도서가 있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골고루 영양섭취를 해야 하듯, 성경공부에도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골고루 영양식단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나의 매일의 내가 주인 된 삶 속에서, 주님께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하는 훈련은 역시나 어려웠고 밀



린 숙제를 할 때는 내 양심이 싫어지기도 했다. ‘에이, 이런 맘으로 하느니 그냥 때려 치우는게 낫지’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이끌고 그 자리에 갖다 얹혀 놓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강권이 있었기에 절뚝거리며 끝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매주 한 과씩 풀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해 먼지만큼의 허점도 없으시고 용납치 않으시며 우리 인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고 세심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말씀 묵상의 부담감도 늘 있었지만,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맘을 헤아리게 되었고 반성하며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영의 양식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었던 좋은 훈련이었다. 이러한 훈련이 나의 생활 속에서 몸에 배인다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풍풍 풍 흠날릴 것이다.

제자훈련을 하며 지금까지 오면서 돌아보니 참 많은 삶의 변화가 나와 내 가정에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싶은 게 1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시간이었나 싶기도 하다. 앞이 보이지도 볼 수도 없는 어려운 고비가 닥칠 때마다 나는 못한다 라며 포기하며 살아왔고, 하나님!! 내가 고아가 아닌 것만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때도 많았었는데...

이제와서 보니 그런 와중에 무슨 정신으로 제자반 공부를 하려 했는지.. 그렇지만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몰고 몰아 이곳까지 이끌고 오셨음을... 싸움은 내가 할 테니, 넌 그냥 그 곳에 있으라고. 나



평신도훈련 제자반 (교사: 정대영 장로)

혼자가 절대 아니었음에 그 모든 싸움은 주님께서 하셨음에 많은 문제 가운데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놓임 받게 된 것에 깊이 감사하였다. 나의 주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주님의 일에 게으름이 생길 때마다, “애. 너, 나 사랑한다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고 안 들은 것으로 하고 싶을 때도 자주 있지만, 그러기엔 주님께서 내게 쏟아 퍼 부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너무도 많아 “알았어요. 주님!” 하며 달려갈 수밖에 없다.

작년 11월, 시아버님의 부고와 함께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다녀오면서 정신적으로는 주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었고, 육신적으로는 너무 지쳐있던 시간이었다. 거의 한 달 만에 교회엘 갔고 정대영 장로님을 보는 순간, “장로님! 저 아무래도 재수해야겠어요! 수업을 너무 많이 빼 먹어서..” 했더니, 장로님께서 “우리 클래스가 수업을 연장해서 가기로 했으니깐.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시며 “죄수는 있지만, 재수는 없어!”라며 단호히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수업에 임할 땐 정신없이 해야 할 것이 많아 쫓아가느라 바빠서 느낄 수 없었던 제자훈련의 소중함이 이제야 불쑥불쑥 나의 맘을 훑고 지나간다. 이번 제자반 공부를 통해 다시 배운 것이 있다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납작하게 엎드려야 함도 배울 수 있었다.

이제 겨우 제자반 훈련을 마쳤고 또 오를 산이 많이 남아있다. 그간 배웠던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들




이 내 삶 되길 소원하며, 지식만 가득차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여 머리만 큰 자 되지 않길 바라며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영육 간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길 내 자신에게 바란다.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주님과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져 있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조금은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께는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과 빛이라는 길, 나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전해질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삶이 나의 목표가 되길 바라며...

제자훈련 아직 안 받으신 분들. 도전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나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우리 제자들을 양육하시느라 애쓰신 정대영 장로님께도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평신도훈련 성장반 (교사: 이종두 집사)

뜻밖의 고난과 열매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비교적 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바울 일행에게 뜻밖의 고난이 찾아온다.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하였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이 이로 인해 수입을 떨어지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게 고소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와중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드리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간수와 그의 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글 - 오장석

루디아의 강권에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루디아의 집은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 단순히 잠자리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었다. 매일의 식사는 물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론하기에도 좋은 장소였다. 한 마디로 선교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지라”(행 16:16)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기도처를 방문했다. 사실 그곳만큼이나 복음을 전하기 좋은 장소가 있을까? 바울은 기도처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루디아의 집에 모여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다.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나름대로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처로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만남은 바울과 실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고난의 방향으로 내몰았다. 누가는 이 여종이 점을 치는 여자로, 그로 인해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다고 소개한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행 16:17-18)

그런데 문제는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 질렀다. 여종은 분명히 영적으로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런

데 여종은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를 마치 자신과 자신의 주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여종이 사용하고 있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 (Most High God)’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반드시 동일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당시 이교도에서도 자신들의 신을 지칭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던 표현이며, 따라서 여종이 사용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말 또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기에 한 두 번 여종이 소리 질렀다면 무시하고 넘어갔겠지만, 여러 날이 되어도 그치지 않자 바울은 여종을 향하여 외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여종에게서 즉시 나갔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려갔다”(행 16:19)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다. 귀신이 떠나간 이후로는 전혀 신통치 못했다. 이로 인해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주인들이 화가 났다. 그래서 하루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 ‘저자(헬라어로 ‘아고라’, 공공 광장; Forum)’로 끌고 갔다. ‘저자’는 보통 도시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팔았으며 때로는 공개 재판도 하였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행 16:20-21)

여종의 주인들은 상관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면서 이유로 도시를 혼란하게 한다고 말했다. 로마 사람들인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며 도시를 심히 요란케 한다는 것



(위) 빌립보의 유적 ‘저자 (헬라어로 ‘아고라’, 공공 광장; Forum)’ 뒤로 보이는 것이 대성당의 자리이다. (아래) 당시의 ‘저자’의 모습을 그려놓은 상상도. ‘저자’는 보통 도시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 장소였다. 따라서 그곳에 장터가 자리를 잡았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팔았다. 때로는 공개 재판도 하였다.

이다. 복수가 목적이었기에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자 ‘우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여종의 주인들이 사람들을 고용하여 짜고 일을 꾸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웬지 이어지는 사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마치 우리들이 들고 일어나 소리치니까 상관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어떤 일

종의 심문도 없이 바로 판결을 내려버린다. 옷을 찢고 매로 치라!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시민이었다. 당시 로마의 법에 따르면, 시민은 심문이나 재판 없이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을 특권을 지니고 있었다. 더구나 채찍이나 고문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왜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임을 미리 밝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상황이 너무 급하게 진전되어 자신들이 시민임을 밝힐만한 틈이 없었던 것은 아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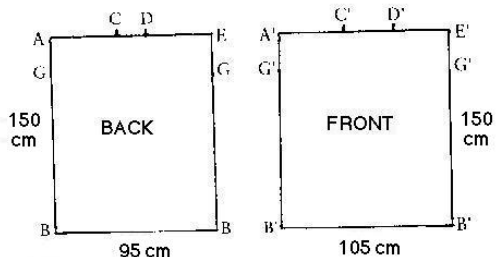
까? 아니면 군중들의 외침에 파묻혀 전달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여기에 가담한 무리들은 단순히 몇몇의 군중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비록 주인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짜고 분위기를 띄웠을 지라도 많은 무리들은 이들의 말을 믿고 같이 동조했던 셈이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주인들의 말을 쉽게 믿도록 하였을까? 주인들은 바울 일행을 고소하면서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운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점을 먼저 주시킴으로써 받아들이기 쉬운 풍속을 전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로마 4대 황제는 ‘클라디우스’로 AD 41년에 즉위하였는데 초기에는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다. 그런데 클라디우스는 특별히 동방에서 전해오는 신비로운 종교들의 확산에 민감해 있었다. 드루이드교의 확산이 그 중 하나인데, 드루이드교도들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교로 개종시키고자 많이 노력했었다. 반면, 클라디우스 황제는 가능하면 종교를 로마의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대인들 또한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생겼고, AD 45년에는 반유대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이탈리아에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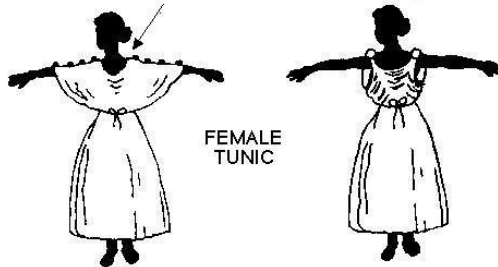
다. 약 2만 5천명의 유대인들이 그리스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용한 것은 아닐까? 주인들은 바로 이 점을 알고, 전면에 바울 일행이 유대인인 점과 알 수도 없는 희귀한 풍속을 전한다는 말로 군중들을 선동했던 것이다. 이에 군중들은 함께 들고 일어난 것이고, 폭동을 두려워하는 상관은 일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자 하여 군중들의 항의대로 바울과 실라를 벌하였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행 16:22)

고대사회의 의복은 지금과 같이 천을 자르고 정교하게 바느질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천을 몸에 두르거나 이음새를 버튼이나 바느질로 연결하는 정도였다. 로마의 시민 복장으로 가장 안쪽에 입는 것은 ‘튜니카’로 그리스의 키톤이 변형, 발단된 원피스 형태의 의복이다. 여자들의 경우, ‘튜니카’ 위에 ‘스톨라’를 입었는데 이는 튜니카와 비슷하지만 팔을 과감하게 드러내어 안에 입은 튜니카를 보이게 한다. 스톨라는 튜니카에 비해 훨씬 더 비싼 천으로 제작되었으며, 색상 또한 다양했다. 반면 튜니카는 보통 흰색이나 베이지 색으로 만들어졌다. 맨 위에 걸치는 것으로 ‘팔라’라는 것이 있



NB Extra 10 cm between C' and D' allows V-neck at fr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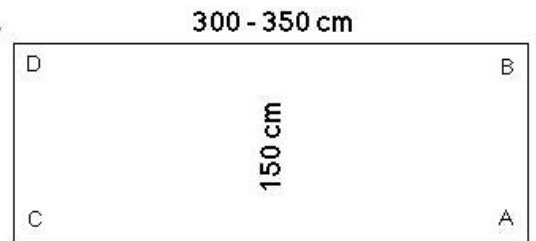
a. fastened by buttons and loops b. fastened by brooches



(왼쪽) ‘튜니카’의 보통 크기와 걸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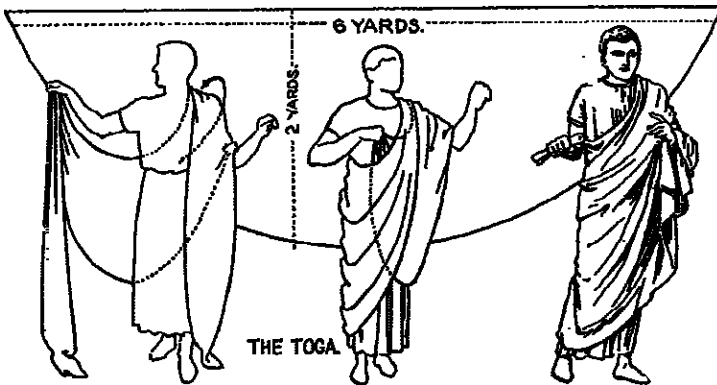
(오른쪽 위) 로마의 여자들이 옷 입는 법. 제일 안쪽에 ‘튜니카’, 그 위에 ‘스톨라’, 그리고 맨 바깥에 ‘팔라’를 걸쳤다.

(오른쪽 아래) ‘팔라’의 보통 크기와 걸치는 방법



Palla

는데, 이것은 그리스의 하마티온이 계승된 것으로 직사각형 또는 반원형의 덮는 천이다. 보통 어깨를 감았는데 때로는 머리를 덮기도 하였다. 남자들이 걸치는 것은 ‘팔리움’이라고 불렸다.



또한 외부에 걸치는 의복으로 ‘토가’라는 것이 있다. 남녀가 모두 입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토가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서 평상복으로 입기보다는 공식적인 의식 때만 입게 되었다. 일반인들은 간단한 흰색의 토가를 입었던 반면, 황제나 귀족들은 ‘클라부스’라는 자주색 띠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토가를 입었다. 지난 호에서 소개했던 바와 같이 자주

색(임페리얼 퍼플)은 로마 시대에 황제나 귀족들의 의복 염색에 사용되었다. 지중해에서 많이 자라는 뮤렉스 조개의 아가미 샘에서 분비되는 맑은 체액을 공기 중의 산소에 노출시키고 햇빛을 쬌어주면 몇 차례 색이 바뀌다가 마침내 자주색의 염료가 만들어지게 된다.



십대 소년의 초상화. 로마식 튜니카를 입고 있는데 오른쪽 어깨 위로 가느다란 ‘클라부스’라는 자주색 띠가 장식되어 있다.

보통 죄인들이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죄인들에게 채찍질을 가했는데, 채찍질을 하기 이전에 옷을 찢었다. 당시의 옷이 보통 원피스였던 점을 감안하면, 옷을 찢을 경우 상체만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옷이 완전히 찢어져 벌거벗어진 채로 남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채찍질에서 오는 아픔뿐만이 아니라, 대중들 앞에서 나체로 서게 되는 모욕감, 굴욕감도 함께 견디어야만 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단단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행 16:23-24)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당시의 분위기 상, 성난 군중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기 위해 정신없이 매질을 가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맞았으리라. 그리고 옥에 가둔 후,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역시 군중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이다. 훗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에서 당했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살전 2:2)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 바울에게 있어 결코 잊기 쉽지 않은 순간이었다.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다. 1세기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Vitruvius)에 따르면, 당시의 감옥은 일반적으로 ‘저자 (헬라어로 아고라, Forum)’ 근처에 지어졌다고 한다. 빌립보의 경우에도 ‘저자’의 북서쪽 코너에 돌로 만들어진 작은 동굴이 하나 있는데, 5세기경부터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었던 감옥으로 여겨지고 있다.

감옥 안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어떠했을까? 일단 매로 인해 생긴 상처를 돌볼 수 없었다. 상처 부위를 씻을 물이 없기 때문이다. 누가는 발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외부(위)와 내부(아래)의 모습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다고 전하는데, 착고는 대개 나무나 쇠로 만들어졌다. 착고의 종류에 따라서 발뿐만 아니라, 손도 같이 채울 수 있었고, 중죄인인 경우 목까지 채울 수 있었다. 당시의 감옥은 굴처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햇빛을 받기도 어려웠다. 감옥 문 근처에 있는 감방이라 할지라도 햇빛을 받기 어려운데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방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하겠다. 하루 종일 어두침침한 곳이라. 죄수들을 위해 마련된 의복이 따로 없었다. 따라서 찢어진 옷을 다시 챙겨 입어야 한다. 제대로 입혀질 리가 없다. 콘스탄틴 황제 때까지는 감옥 내에서 남녀에 대한 구분도 없었다. 때에 따라서는 한 감방에 남녀가 같이 투옥되었다. 감옥 내의 음식은 대부분의 경우 외부에서 (즉, 가족들이나 친지들에 의해) 공급되어야 했고, 감옥 내에서 제공된다 할지라도 양과 질적인 면에서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 탓에, 장기간 투옥되어 있는 죄수들은 종종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간수들에게 죽여 달라고 간청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간수들이 죄수들의 죽음을 도왔다가 발각되는 경우, 간수들은 중벌을 받았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시점부터 누가의 기록은 1인칭 시점에서 다시 3인칭 시점으로 되돌아간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는 바울과 실라와 더불어 같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의 기록이 1인칭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감옥 이후가 아니라 바울의 3차전도 여행에서 빌립보를 방문하는 때이다. (행 20:6) 따라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 빌립보를 떠날 때, 누가는 빌립보에 남겨진 듯하다.

“밤중쯤 (자정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행 16:25)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육체적으로 심히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였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찬양을 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이 어떠하든 바울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있던 다른 죄수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외쳤으리라 생각된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때 자고 있던 간수가 깨어났다. 그런데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착각한 간수는 자살하려고 하였다. 죄수들이 도망한 것에 대해 불명예스럽게, 그리고 굴욕적인 고문을 받으며 책임 추궁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죄수들이 다 있으니 자살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 치고 다른 죄수들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큰 지진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지진과 더불어 간수도 깨어났고, 등불을 찾아 외치는 순간 다른 병사들이 감옥으로 몰려들었을 수도 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어떻게 해야 자신이 상관에게 책망 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닐 것이다. 간수는 이미 모든 죄수들이 다 감옥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도 분명하였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 바울 역시 ‘구원’에 대한 질문에 가장 분명한 답을 해 주고 있다. 바울은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에게까지 함께 복음을 전했다. 그것도 새벽에! 이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닦아주었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날이 새자, 상관들이 아전들을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명령하였다. 간수가 이 말을 듣고 기쁘게 바울에게 전하였으리라.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었던 점을 상관에게 전하여 자신들이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상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이 문제가 커지면 본인들에게도 좋을 것이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상관들이 직접 감옥으로 나와 바울과 실라를 공개적으로 풀어주었다. 다시 말해, 바울과 실라가 군중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범죄자가 아님을 확인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가기를 간청하였다. 더 이상의 혼란이 생기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리라.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곳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었다. 투옥된 바울과 실라를 놓고 나름대로 어찌해야 하는지 의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와중에 집으로 돌아온 그들을 보고 적잖게 놀라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지 않았을까. 지난 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지 않았을까.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의 찢어진 옷을 새 옷으로 바꾸어주지 않았을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누가를 제외한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향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의 상황은 2천 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상황과 유사하다. 지금도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권력에 집중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15%의 극단적인 정통 유대교인들인 ‘하레디’와 사두개인과 같이 종교와 현실을 타협하며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한 상처와 억압으로 자포자기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 아랍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글, 정리 - 유종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남쪽에 위치하여 세계 3개 대륙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에 놓여 있고, 면적은 강원도 정도의 작은 나라이다. 인구는 약 700만 명으로 이중 유대인이 570만 명, 아랍 민족을 포함한 42개 미전도 종족들 14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우셨던 평화의 성 예루살렘은 ‘살롬’, 즉, 평화라는 뜻의 유대인의 인사말과 같이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평화가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다.

로마와 유럽이 기독교화 되면서 초대교회 이후 교회들은 유대 민족을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폄박하며 유럽, 러시아 등지에서 지난 1,500년간 유대인을 박해해왔고, 급기야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의해 6백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다.

1948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이 이뤄졌다. 1,900년 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가를 설립한 이스라엘에게는 독립의 감격이었지만 삶의 터전을 빼앗긴 아랍인에게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였고 배신이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수차례의 전쟁을 거치며 이젠 기독교,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대립하는 문명충돌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이 종교 갈등은 4,000년 전 아브라함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형제 갈등이 세월 속에 팽창하면서 지난 60년간 서방국가들은 이스라엘 편, 세계 57개 이슬람 국가는 팔레스타인 편에 서게 되었고, 급기야 911 사태를 계기로 세계마

저 두 동강으로 나뉘게 된다. 아직도 유대 민족은 서구 기독교로부터 2천 년간 받았던 상처를 팔레스타인 아랍 민족에게 고스란히 주고 있고, 상처 받은 아랍 민족은 그 상처를 다시 기독교와 유대교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이런 피의 악순환은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져왔고, 특별히 아랍인들에게 기독교와 유대인은 자신의 고향을 짓밟고 자신의 터전을 빼앗은 종교로 생각되어 예수님을 거부한 채 이슬람에서 더욱 자기의 민족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상황은 2천 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상황과 유사하다. 지금도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권력에 집중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15%의 극단적인 정통 유대교인들인 ‘하레디’와 사두개인과 같이 종교와 현실을 타협하며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한 상처와 억압으로 자포자기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 아랍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조차 이러한 민족 갈등의 상처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아랍인은 아랍인끼리 모여 예배드릴 뿐 두 민족 간의 막힌 담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은 이 지역의 갈등을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선제 로켓공격에 이스라엘은 하루에만 500회의 폭격으로 팔레스타인을 공격했고, 현재는 국제사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상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투입된 상태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무차별 폭격에 대해 주위 이슬람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맹비난하며 이슬람교로 뗏어져 있는 형제 국가에 대한 성전을 부르짖고 있다. 이 전쟁이 지속될 경우 세계는 세계 경제의 한축인 이슬람권이란 거인 세력과 소용돌이에 맞물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 발 경제

불황의 파장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때 전 세계는 다시 한 번 정치,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전쟁은 경제, 정치,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어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해답이 없음을 고백하며 세계 교회가 기도로 다시 한 번 일어나야 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상 아버지의 방법으로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오셨다. 1990년대 이후 구 소련권에서 몰려온 유대인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급속히 개척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14,000여명 정도의 거류민 그리스도인과 약 100여개의 크고, 작은 교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에게 주셨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 BTJ) 비전’이 이제는 한국 교회를 비롯한 세계 교회의 사명이자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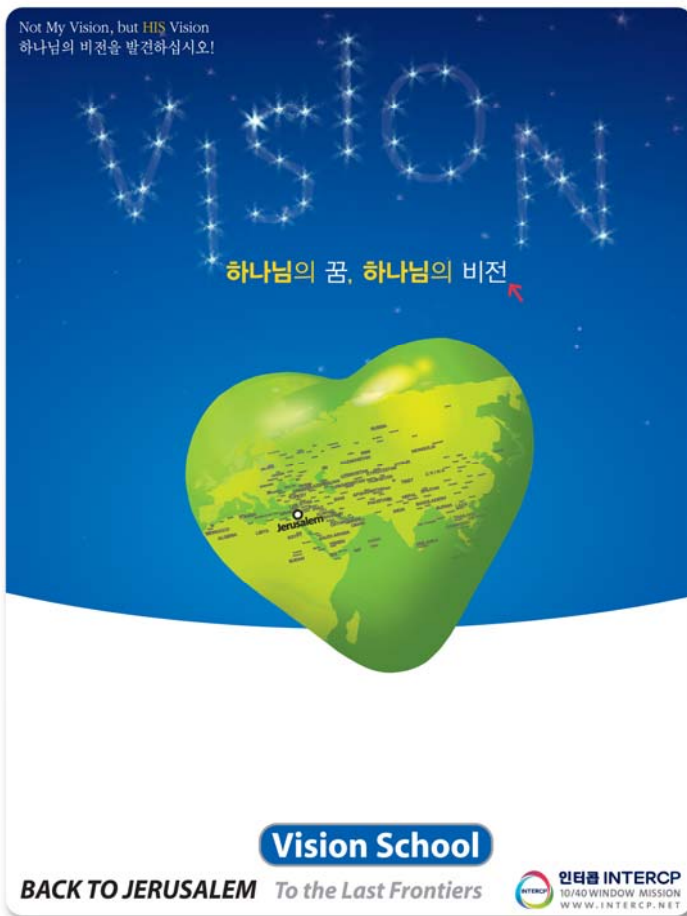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 아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롬 11:11-12)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은 사실이다. 넘어졌다. 이 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없었다면 이방인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되찾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세계 영적전쟁의 진원지인 이 땅의 회복을 통해 모든 민족의 회복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성취될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1. 지금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전쟁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전쟁이 또 다른 전쟁을 낳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포합니다. 전쟁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분쟁과 오해와 슬픔과 거짓의 영이 끊어지게 하소서.

2.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이방인인 우리와 열방의 구원을 위해 실족하여 고통 당해왔던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세계 영적전쟁의 진원지인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세계 교회의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 BTJ) 비전’이 성취되게 하소서.



DC 메릴랜드 2기 비전스쿨 (베다니 장로교회)

- 일 정

2월23일 (월) 저녁 7:30	입학식/오리엔테이션
3월2일~4월14일 (월,화 주2회) 저녁 7:30	강의 (7주간)
4월20일 (월) 저녁 7:30	졸업식

맥체인 성경읽기표

2월	가 정		개 인	
1	창세기33	마가복음4	에스더9, 10	로마서4
2	34	5	욥기1	5
3	35,36	6	2	6
4	37	7	3	7
5	38	8	4	8
6	39	9	5	9
7	40	10	6	10
8	41	11	7	11
9	42	12	8	12
10	43	13	9	13
11	44	14	10	14
12	45	15	11	15
13	46	16	12	16
14	47	누가복음 1: 1-38	13	고린도전서1
15	48	1:39-80	14	2
16	49	2	15	3
17	50	3	16, 17	4
18	출애굽기1	4	18	5
19	2	5	19	6
20	3	6	20	7
21	4	7	21	8
22	5	8	22	9
23	6	9	23	10
24	7	10	24	11
25	8	11	25, 26	12
26	9	12	27	13
27	10	13	28	14
28	11, 12: 1-21	14	29	15

헬로쉽의 어느날

행사일정

- ◆ 2월 7일(토) - 15일(일) 새생명축제를 위한 전도학교 (VA)
- ◆ 2월 13일(금) - 15일(일) 한마음 겨울수양회 (MD)
- ◆ 2월 14일(토) - 22일(일) 새생명축제를 위한 전도학교 (MD)
- ◆ 2월 20일(금) - 21일(토) 영어회중 금식수양회 (MD)
- ◆ 2월 21일(토) - 22일(일) 행복한 가정만들기 세미나 (MD)
- ◆ 2월 23일(월) - 3월 6일(금) 성지순례 (MD/VA)



기도는 이렇게.
(헬로쉽 MD 한국학교 민속놀이 시간에)